



8면

동학농민혁명기념제 '대성황'

2025년 5월 13일 화요일 (음 4월 16일) 제374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 경 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민주·국힘 전북자치도당, 대선 체제 돌입

정당별 후보자 필승 다짐
도내 유권자에 지지 호소
전북지역 정책 공약 제시

1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양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대선 체제에 돌입했다.

먼저,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이 이날 오전 10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출정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 가동을 선언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북이 '진짜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이번 대선을 규정하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도민의 결집을 호소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회견에서 이원택 도당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는 전북이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우뚝 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전북도민과 함께 전환의 정치를 실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쓰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며 이번 선거가 국민 주권의 힘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①이원택(가운데) 진짜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후보의 필승을 다짐하는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도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②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조배숙(가운데)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김문수 후보의 필승을 다짐하는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또한 그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전북이 겪은 예산 축소와 정책 배제의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북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출정식에서 전북도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전북도민 90%의 투표 참여율과 역사적인 93% 득표율'을 목표로 내걸었다.

전북 정책 공약으로 총 7개 분야 88개 세부 사업을 제시했다.

전북선거대책위원회는 △하계 올림픽 유치 및 도로·역사·관광·문화를 구축한 K컬처 메가 유치 △첨단산업의 테스트 베드 구축 △바이오·재생에너지·철단 신소재·AI·자율주행 구축 등 새만금 국가성장 거점 육성 △농생명 산업도시로서의 성장 △자산 특화 금융중심지 도시 △사통팔달 교통체계 구축 △에너지 전환 시대

선도 등 전북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종교계, 시민사회, 노동계, 문화예술계 등 다양한 분야 인사들이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함께 참여해 대선 체제에 힘을 실었다.

기독교계를 대표해 김동하 목사(한동교회 목사), 조계종단 소속 회일스님(찰 좋은 우리절 주지),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스님(마이산 탐사 주지), 원불교를 대표한 황규택 씨가 각 종단의 뜻을 모았으며, 전영배 전북노인회장, 권기봉 한국노총 전북본부 의장, 문화예술계의 송봉금 씨, 장년 농민 대표 최한호 씨도 상임선거대책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날 회견에는 이원택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이성운 국회의원(전



주을),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이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참석했다.

민주당 도당은 이번 대선을 통해 전북이 소외와 불이익의 정치에서 벗어나 도민 중심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강한 의지를 거듭 확인하며, 전북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위원장 조배숙)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수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전북 발전을 위한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조배숙 도당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의 도당위원장으로서 이번 조기 대선에 발상하게 된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문수

후보에 대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살아온 인물이라고 소개하며, "젊은 시절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에 헌신했고, 경기도지사로서는 청렴하고 유능한 지도자로 평가받았다"고 치켜세웠다.

이날 발표된 전북지역 주요 공약으로는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 △새만금 미래 성장동력 완성 △사통팔달 교통 인프라 확충 △전북 미래 전략산업 육성 △전주-완주 통합 지원 △헬니스 관광 육성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양경무 전주갑 당협위원장, 이서빈 전 전북자치도 정책관, 김석민 도당 수석대변인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만호 기자



스마트 모빌리티·에너지 선도
새만금청, 현대차그룹과 협약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갖춘 기업친화형 새만금 조성을 위해 현대자동차그룹(이하 현대차그룹)과 '새만금 스마트 모빌리티·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1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지난해 10월부터 주재별 논의를 거쳐 새만금 메가시티 신(新) 모빌리티 연결망 구성과 스마트 미래도시 건설에 대한 양 기관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성과이다.

새만금청과 현대차그룹은 공동연구단을 구성하여 소통하고, 새만금지역에서 최초로 수립되는 스마트도시 계획을 함께 제시(올해 4월 착수)함으로써 미래도시의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국책사업인 새만금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대차그룹 강점인 스마트 모빌리티 핵심 요소인 모빌리티 특화 전략을 협력해 수립하고, 탄소중립 시범사업 실증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국내외 정상급 비보이들, 전주서 '격돌'

24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제18회 전주비보이그랑프리'

대한민국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비보이 배틀이자 국내 최고의 비보이들이 모여 펼치는 '제18회 전주비보이그랑프리'가 문화도시 전주에서 열린다.

전주시와 (사)라스트포원은 오는 24일 오후 6시,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제18회 전주비보이그랑프리'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유명 비보이 크루는 물론,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럽 및 아시아 비보이들이 대거 참가해 우승을 놓고 격돌하게 된다.

우승팀에게는 우승 상패와 상금 1000만 원이 주어지며, 본선 대회 수

상자들에게는 총 800만 원의 상금이 추가로 수여돼 총 1800만 원의 대회 상금을 두고 치열한 배틀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비보이팀이자 전문예술법인단체인 '라스트포원'이 기획과 홍보, 대회 운영을 맡아 비보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여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회 심사위원은 △2024년 파리로 랍픽 브레이킹 여자부 금메달리스트인 비걸 아미(AMI) △여대 전주비보이그랑프리 최다 우승자인 라스트포원 멤버 신영석(ZERO NINE)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갬블러크루의 최동욱(RUSH) △국내 손꼽히는 파워무버 이상진(EAGLE ONE) △서울비보이페스티벌 등 다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내 브레이킹씬에서도 인

정받고 있는 신종훈(TRICKX)이 맡는다.

또한 관객들의 흥을 돋우고 환상적인 브레이킹댄스를 선보이기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DJ로 평가받는 WRECKX(최재화)와 ZESTY(임석용)가 초청돼 비보이 크루들과 환상적인 호흡을 맞추게 된다.

이번 대회에서 MC는 지난해에 이어 JERRY(김근서)와 DU LOCK(정상현)이 맡는다.

이와 함께 올해 전주비보이그랑프리에는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특별무대도 마련된다.

이날 오프닝 공연으로 심사위원 5명의 기량을 엿볼 수 있는 심사위원 쇼케이스가 준비돼 있으며, 게스트 특별공연으로 △래퍼 '팔로알토' △스트릿우먼파이터2 출연팀인 '마네퀸' △비트박스 음악 '도파민'으로 화제를 모은 비트박서 왕과 헬캣의 '책꽂' 공연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화려한 무대를 선사하게 된다.

이외에도 부대 행사로 그래피티 시연 및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래피티 체험존이 마련되며 뱃지 만들기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 기념 굿즈도 제공된다.

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지난 2007년 처음 전주에서 선보인 이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비보이(브레이크) 배틀 대회라는 명성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전주가 대한민국 문화수도이자 비보이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주비보이그랑프리는 '라스트포원'의 독일 세계대회 우승을 계기로 지난 2007년부터 올해로 18년째 열리고 있는 행사로, 본선 대회 입장권은 행사 당일인 24일 오후 1시부터 지정좌석권이 선착순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권희정 기자



임실군의회
IMSIL-GUN COUNCIL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

임실군의회

